

제 목	출 처	보도일자
홍릉, 도심형 '사이언스파크'로 탈바꿈	매일경제	2014.12.02



2일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제5회 홍릉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홍릉을 창조경제 실현과 개방·협력·융합의 거점으로 만들자'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선화 KISTI 원장, 이병권 KIST 원장,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금중해 고등과학원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 윤영균 국립산림과학원장. [김재훈 기자]

“서울 중심에 위치한 홍릉이 세계적인 '도심형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로 성장해야 한다.” 2일 서울 고등과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홍릉포럼(위원장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홍릉 연구단지가 앞으로 도심형 사이언스파크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이 지역 생태계와 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릉포럼은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KAIST 경영대학,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홍릉 인근 대학과 국책기관이 참여한 모임으로 2012년 7월 출범했다.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홍릉단지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홍릉 단지 발전 방안 연구 수립을 위해 내년도 예산 55억 원을 책정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홍릉포럼에서는 홍릉 연구단지가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많은 전문가들은 홍릉 단지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존재한다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많은 연구소와 대학이 즐비한 홍릉은 시민들과 함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상협 KAIST 경영대 교수(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는 “수도권 안에 5000명의 박사급 인력이 함께 있지만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이 커 조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홍릉 연구단지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상생은 물론 그들이 과학단지에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도 "지역주민들도 홍릉 연구기관과 유리돼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며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 투자가 조화를 이뤄 중앙집권형이 아닌 자율성 있는 과학단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준목 고등과학원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홍릉을 방문하지만 교통과 정주여건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군대시설을 재활용해 세계적 바이오 연구단지로 성장한 스웨덴 옅살라 사이언스파크를 홍릉 연구단지 모델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홍릉을 발전시켜 대덕연구단지과 쌍벽을 이루는 과학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단지를 양극형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후원하는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정부 예산, 공공기관 속성에 따라 휘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홍릉은 연구개발(R&D)은 물론 교육 문화 예술 국방 등 여러 분야가 집적해 있는 수도권 유일의 연구단지"라며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도심형 사이언스파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강상욱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R&D 투자는 양호한데 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홍릉 입주 기관들이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릉단지는 수도권 내 최대 연구단지로 140여 개 벤처기업과 9개 대학 5000여 명 박사가 밀집해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6만㎡에 달하는 용지가 공동화 위기에 처하면서 이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홍릉단지는 1960년대 KIST가 건립되면서 첨단 기술 개발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필두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앞으로 홍릉포럼이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 투자 유치를 통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융합과 협력을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홍릉 연구단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cestbon@mk.co.kr](mailto:cestbon@mk.co.kr)

원호섭 기자 / [wonc@mk.co.kr](mailto:wonc@mk.co.kr)